

신비한 정신의 진화

| 거이 머쉬 | 심정요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이 미묘하고 복잡한 우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명한 지성의 힘, 또는 의식의 힘에 의해 운행되고 있음을 힘있게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_____

영원한 생명의 용단을 안으로, 밖으로 벗겨나가면서,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된다. 사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우리가 신비와 광대한 무한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보다 더한 신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있는 전체가 무엇인지 나는 알 도리가 없다. 또 우리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속해있는가도 모른다. 무엇도 아니라면, 누가 우주를 관장하는가? 솔직히 과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적혈구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인간의 정맥과 동맥 속을 흘러 다닌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인가? 원반처럼 생긴 자기 몸을 쪼그려서 모세혈관을 간신히 통과한다. 또 허파를 타고 들어온 산소분자를 붙잡아 온몸의 조직으로 보낸다. 이제는 펄떡펄떡 뛰는 심장의 판막에서 텀블링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 자신이 움직이는 조직에 대해, 자신이 영양을 공급하는 두뇌의 생각에 대해, 자신이 지탱해주고 있는 영혼의 꿈에 대해 알 수가 있을까?

읍기를 참조하여 성서의 관점에서 해석해보자. 창조의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 없었다면, “새벽별이 모여서 합창하고 하느님의 아들이 모두들 기쁨에 겨워 소리 지를 때, 주춧돌을 쌓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분명히 원자를 비추듯이 그렇게 쉽게 우주도 비출 수 있는 빛은 결코 인간이 용광로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구름과 바람 중 어느 것이 천국에 더 가까울까? 비에게도 아버지가 있을까? 누가 이슬방울의 아버지가 될 것인가?(역시 읍기에 나오는 내용-역주)

데이지꽃, 벌새, 고래, 세계의 이면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일까? 누가 진화의 초기 단계에 태고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달아주었을까? 부레가 나중에는 육지 동물의 폐로 진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고대의 깊은 물 속에 사는 물고기의 부레는 누가 고안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우리가 숙고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신비, 즉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했지만, 회오리바람 속에서 한 음성이 읍에게 물었다. “그대는 구름이 조화를 이

루는 법을 아는가? ... 혹은 누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아는가?” 내가 알기로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지구는 조종하는 사람 없이도 운행할 수 있을까? 지구는 자신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되는 대로 할 일을 처리할까? 과연 우주가 스스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정신의 기원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을 볼 때, 당신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가지가 그저 우연히 흔들린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아니다. 전체인 지구가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부분인 바람에도, 나무에도 구조가 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데도 목적이 있다. 우리 집 연못에서 암사슴이 즐겁게 헤엄치는데도 분명히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보내듯 반짝이는 별에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 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어느 봄날 숲을 거닐던 나는
인간에 대해, 도덕적 악에 대해, 선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자연은 철학자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이니까.

(워즈워드 〈뒤집어진 계율 “The Table Turned”〉 중-역주)

정신은 아주 기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광물계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자는 전자가 원자 안에서 신비롭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결정체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돌멩이도 자기나 방사능을 띠 수도 있고, 피곤하고 술에 취하고 아플 수 있어도 시냇물을 향해 즐겁게 노래를 불러준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 척도를 가지고 광물을 관찰하면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정신을 식물에서 찾으면 좀 더 쉬워진다. 우리는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 물과 영양을 찾는지 알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다. 심지어 종(種)이 같은 경우라도 갈증에 허덕이는 경쟁자는 적으로 대하면서, 꽤나 먼 사촌뻔 되는 균근균(고등식물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미생물-역주)과는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한다. 소나무의 원줄기를 잘라 보면 알 수 있다. 리더가 없어지는 상황이 닥치면 둘러싼 나뭇가지 중 어떤 가지가 잃어버린 리더 역할을 대신할지 서로 상의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암묵적 거래는 어딘가에서 매일, 매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허니 아가릭(Honey Agaric)이라는 독버섯과 천마(Gastrodia elata)라고 불리는 일본 난의 거래가 그렇다. 이 둘은 전통적으로 서로를 어루만지고 껴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서로에게 먹이가 된다. 왜 공격성이 강한 아가릭이 자신이 기생하는 식물 대부분을 죽이면서도 천마를 향해서는 자신의 공격적인 본성을 그렇게 억제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작은 독버섯도 어쩌면 분별력이 있어서 천마를 향해 공격하지 않고 껴안아서 영적 진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동물의 왕국을 살펴보면 영적 진보로 나아가는 징후가 너무나 명백하다. 동물 대부분이 지닌 도덕규범은 재산, 특히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모두들 알다시피 주인의 현관에서 집을 지키는 개가 정상적인 경비견이라면 당연히 인간 힘을 다해 수상한 침입자를 공격할 것이다. 바닥에 있는 작은 틈새를 찾아낸 귀뚜라미도 그것을 자기집이라 여기기 때문에 도덕적 패권을 위해 자기집을 맹렬히 방어한다. 실제로 귀뚜라미가 자신의 “본거지”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은 종종 목격된다. 이때 본거지의 귀뚜라미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세로 의기양양하게 싸우지만, 침입자는 확실히 웬지 더 주저 주저하면서 이 낯선 장소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 안절부절한다. 물고기부터 영장류까지 경쟁하는 동물들은 상대적 도덕성만 갖고 있어서 무엇을 수호하든 상대적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 하에서는 대개 오래된 서식동물에게 도덕적 우위권이 있으므로 낯선 서식동물은 쫓겨난다. 마찬가지로 등지나 서식처를 지닌 동물이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도덕적으로 유리하며, 유리한 곳에서 더 잘 보존된 집을 지닌 동물이 조심성 없이 집을 방치한 동물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알을 낳았거나 새끼가 있는 동물이 자손이 없는 동물보다는 확실히 큰 특권을 행사한다.

연못에서 물고기가 자신의 영역을 감지하는 능력도 도덕적 측면이 있다. 나는 전에 뉴욕 수족관을 운영했던 크리스토퍼 코츠(Christopher Coats)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큰 물고기들을 넣을 경우는 큰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작은 물고기들을 집어넣을 때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큰 물고기의 수족관에 작은 물고기들을 넣으면 큰 물고기는 먹이를 주는 줄 알

고 얼른 달려들어 꿀꺽 삼켜버린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의 수족관에 큰 물고기들을 몰과 함께 넣어주면 큰 물고기는 아무래도 이상한 곳에 들어왔다는 느낌에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어떤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의 수족관에 떨어진 순간만큼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곳에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양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한 느낌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그 큰 물고기는 2~3 시간 이내에 “자기집”처럼 느끼고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나 물속에 사는 포유류에게는 적응시간이 전혀 필요 없다. 아마도 물고기보다 뛰어난 지능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도덕률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로써 우리는 낫선 수족관 속으로 옮겨진 돌고래와 고래들이 거리낌 없이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먹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동물의 재산권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도 모성 본능일 것이다. 어미에게는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기 새끼가 위협에 처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일종의 신성한 분노로 자신을 무장한다. 그 결과 어미는 심지어 덩치가 열 배나 크고 힘도 열 배나 강한 살인자를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도덕적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비교할 때 분명히 다르지만, 결코 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미는 아무런 편견 없이 사기를 포함해 가지가지의 잔인한 작전, 계략과 장치들을 가리지 않고 시험해 본 뒤, 그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악명이 높더라도 추호도 의심치 않고 당연히 따라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거짓말은 동물이나 식물에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덕목이다. 위장술은 고도로 발달된 수법이다. 줄무늬가 또렷한 호랑이는 그렇지 않은 다른 호랑이보다 훌륭한 호랑이다. 줄

무늬로 먹잇감을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벌로 가장하여 주위를 감싸는 난 는 동식물계에서 최고의 사절로 여겨진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몸이 아픈 개미는 대개 다른 개미들과 함께 씨앗을 모으러 가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불쌍한 아픈 개미는 작은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씨앗인 것처럼 속여서 망신당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이런 불량품은 대체로 검사관 개미에게 언제나 퇴짜를 맞는다. 불행히도 개미는 기만행위에 대해 사전에 경고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추상적인 정직함은 아직 덕목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동물들은 행동할 때 실제로 도덕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는 개들도 거짓말을 하는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로렌츠가 오랫동안 키우던 개 불리에 대한 사례가 흥미롭다. 불리는 약간 눈이 멀고 코를 실룩거리는 녀석이었다. 하루는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달려 나가 사납게 짖어댔다. 늦게야 주인을 알아본 불리는 너무나 당황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불리는 조금 망설이다가 주인의 다리를 밀치고 나가더니 열려 있는 문으로 달려가 길 건너 이웃집 대문을 향해 마치 위험한 적과 대결이라도 펼치듯 계속해서 사납게 짖었다. 동물이나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불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뻔한 속셈이 없었다면 불리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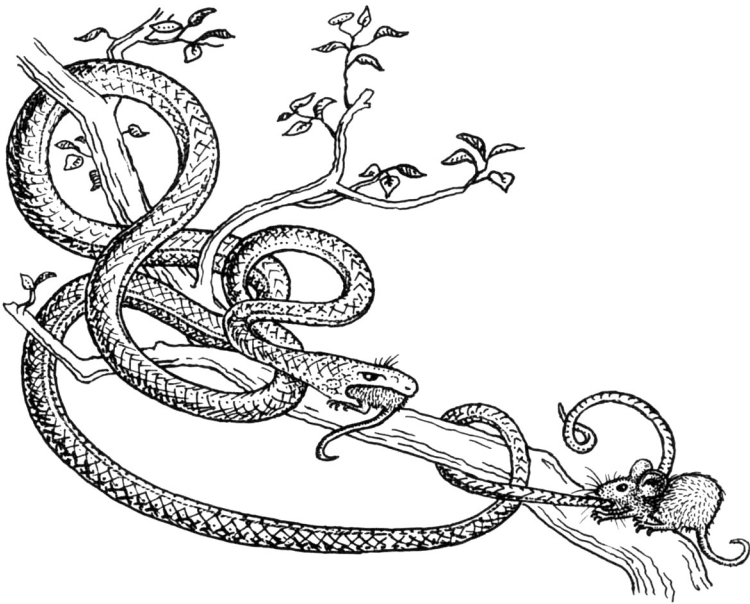
영적 진보의 단계

정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화하느냐는 질문은 우주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의 수수께끼일 것이다. 정신은 원자 이전의 단계에서 출발해서 분자, 유전자, 결정체, 세포, 유기체, 사회 등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이나 인간이 처음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자아만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정신은 진보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음식을 남겨놓는 행동을 한다. 개들은 배고픈 날들을 대비하기 위해 갑작거리던 뼈를 땅에 묻어둔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자아는 지금 여기의 자아보다는 분명히 약하다. 그 이유는 첫 째로 그것은 실제적이지 않다. 미래에 그 일이 정말로 나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죽음이나 재난이 끼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자아가 아무리 의식적 관대함보다는 영리함에 더 신속히 반응한다 해도 그것은 최소한의 자기 규율이 요구되고 그것은 친절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게다가 약한 자아는 정체성에 대해 애매한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은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젊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10년 전의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의 사상이나 동기도 10년 전과 다르다. 193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역배우였던 셸리 템플은 1960년대에 이런 말을 했다. “TV에서 내가 나온 옛날 영화를 봤어요. 나는 ‘어린 소녀’라 불렸던 자신을 마치 딴 사람 보듯 바라보았죠.” 사실 어떤 의미로는 맞는 말이다. 시간과 공간에서 과거가 멀어질수록, 많은 정체성들이 더욱 확실히 분

리되어 나간다. 간혹 미래를 성공적으로 규정짓고 예측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오래된 과거는 대부분이 회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기록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기쁨을 뒤로 미루는 단계 다음으로 나아갈 영적 진보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 아니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자신만 생각하는 수준에서 약간만 벗어난다면(삼쌍둥이나 보통 아기가 막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의식적 관심의 폭을 그렇게까지 넓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을 씻기는 일은 자신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쉽고 또한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있느냐에 달려있긴 하지만 반려자의 목숨을



구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보다 반걸음만 앞으로 더 나가면 될 일이다. 나는 5피트나 되는 채찍뱀이 작은 암컷 들쥐를 잡은 광경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들쥐를 목격한 채찍뱀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들쥐를 입으로 물었다.

암컷 들쥐는 힘없이 찌찌거리기만 했다. 몇 분 후에 수컷 쥐가 겁 없이 부인 쥐를 구하러 나섰다. 남편 쥐는 나뭇가지 위를 올라가더니 조그만 이빨로 채찍뱀의 꼬리를 깨물었다. 뱀은 머리를 돌려 그 성가신 녀석을 정면으로 찌려보았지만 입에 쥐를 물고 있다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벌려 먹잇감을 놓아주었다. 그 순간 용감한 구출자 남편 쥐도 채찍뱀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두 쥐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다.

이 수염달린 쥐 영웅이 자기가 감당할 위험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남편 쥐가 부인 쥐를 자기 자신만큼 아꼈고 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용감한 남편 쥐는 가장 비열한 인간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것 같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의 도덕성에 관한 민감한 질문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볼 때 정신은 하나의 가능성을 선과 악으로 점점 양극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사실 바위와 같은 무생물은 정직함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사실로 생물보다 무생물이 더 정직한 이유가 설명된다. 생물의 삶은 속이거나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 나아가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고양이와 개보다 정직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범위를 넓히면, 무지를 지성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이

유도 설명할 수 있다. 비록 고양이가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먹이를 덮치려고 숨어있긴 하지만(이 수법은 인간이 보기에 사악한 것 같다) 언제나 잘 알려진 규칙에 따라 단순한 게임을 하며 자신의 기분을 알려준다. 한편 개는 훨씬 사회적이고 복잡하며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걸, 사과, 아침, 자랑, 발뺨까지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한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은 인간이 동물을 오해하는 일도 가끔 일어난다. 거기에는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도 포함된다. 인간과 동물이 관계를 맺은 역사에는 동정과 감상뿐 아니라 미신, 잔인성, 경쟁, 불공평함이 가득하며 놀랄 만큼 많은 기소 사건이 벌어졌다. 사람들을 화나게 한 짐승들은 법원에 소환되어 인간의 법률을 따르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하게 치렀다. 1585년, 프랑스의 발랑스에서 열린 애벌레에 대한 유명한 재판을 들은 적 있는가? 이 재판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와 신학자들이 동원되었다. 무려 네 달이나 끌던 재판은 결국 현행법으로 붙잡혔던 기어 다니는 피고 애벌레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곡식이 풍부했던 땅에서 쫓겨나면서 끝이 났다. 애벌레들이 풍부한 곡식을 실제로 모두 갹아먹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이치에 따라 애벌레는 곧 나비가 되어 하늘로 훨훨 날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사법적인 판 는 기원전 18세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의 관습법에서 시작된 것 같다. 함무라비 관습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생물은 신이 인간의 효용과 이익을 위해 만들었으며,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며 당연히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토록 유서 깊은 관습법을 가장 많이 어긴 동물은 아마도 돼지였을 것이다. 돼지들은 관습적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일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때가 많았

다. 사람(주로 어린아이)을 죽이는 돼지는 재판을 통해 처형당했다. 실제로 교수대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불태워 죽였다. 이러한 재판의 기소 대상은 소와 돌고래는 물론, 물고기와 개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때로는 식물까지도 해당되었는데, 그 예로 중세 부르고뉴 지방의 한 목사는 과수원에 파문을 선언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추방조치를 내렸다. 과일이 아이들을 유혹하여 미사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뒤로 1906년에는 스위스에서 “범죄자” 개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곤경에 처한 어떤 피고인에게도 철사 올가미와 철제 밧 등으로 그들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인간을 기소할 수 있는 수단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동물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짓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 아닐까?

다른 생물과 인간에게 저지른 죄(이것 역시 기억해야 한다)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맹점” 주변에서는 영적 진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맹점이란, 동물을 추격하거나 죽이는 스포츠, 동물을 도살하여 바치는 제사, 동물을 무자비하게 취급하는 동물원 등을 들 수 있다. 동물 역시 자신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경쟁자와 영역을 놓고 다툰 때 부리로 쪼던 것을 대신하여 이제는 새 울음소리를 낸다. 승리한 수사슴은 패배한 경쟁자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관대함을 베풀어 준다. 침팬지는 무리 중 한 마리가 사고로 죽었을 때 비탄에 잠겨 동료의 죽음을 탄식한다. 맹도견은 장애인을 안내하여 위험한 도로를 건 다가가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날마다 노출되는 일을 감수한다. 헌신적인 맹도견의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만족스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지구의 아침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막 떠오른 정신의 “태

양”이 점점 밝은 빛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야 간신히 눈을 뜨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에서 형제애가 서서히 샘 솟는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걸린다. 아마도 시간은 공간보다 더욱 심각한 장벽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표면세계에 감추어진 수많은 신비현상들은 결국 그것들이 실재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발달했고 최근에는 (지진학을 통해) 자신의 맥박을 살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성은 초유기체(superorganism)로서 아직도 눈멀고 감각이 둔하다는 것이다.

석기 시대의 생활 방식을 간직한 소수 민족들이 숨어 사는 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타사다이(Tasaday)라는 부족은 1971년에 야 필리핀의 정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 싸우거나 사냥을 하지 않고, 딸기류의 열매, 과일, 벌레, 계, 알 등을 먹는다. 이들에게는 “분노”라는 단어도 없고 문명화되고자 하는 열망도 없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타사다이 부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돈과 교육은 대량학살만큼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대량학살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적 공격성을 자제할 줄 안다. 그러니 적어도 하이에나, 사자와 랑구르 원숭이(몸이 야윈 인도산 원숭이-역주)에 비하면 자제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거나, 자신의 새끼를 죽이거나 동족끼리 잡아먹는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인간은 다행히 그들 덕분에 “덜 공격적인 동물”로 평가된다. 물론 인간에게도 의식적 규범과 빠

르게 진화하는 도덕적 규범은 있지만, 번덕이 심한지라 일관성 있게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규범들을 이용하여 간신히 조화를 지 해가는 정도다. 내가 보기에는 볼테르가 이 점을 잘 지적했다. “살인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 한 세기가 지난 후 로버트 E. 리(Robert E. Lee) 장군은 볼테르의 말을 뒤집는다. “전쟁이 매우 끔찍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무도 전쟁을 좋아했을 테니까.” 리 장군의 논리를 조금 더 크게 적용해보면, 지금까지 해온 전쟁보다 훨씬 끔찍한 핵전쟁을 발명한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 행운아라고 할 수 있다. 핵전쟁은 정상적 인간이라면 도저히 좋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지금은 휴지상태에 있다(제발 앞으로는 그대로 사라지기를 기도한다). 폭군은 자기의 부관에게 살해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유명한 경고 메시지를 신기한 방법으로 폭군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악이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신비로운 상대성

신비한 잠재력의 징후는 유전자, 씨앗, 알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물에 나타난다. 이를테면 무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 형태를 만들어가는 은하, 심지어 설명할 수 없는 지성의 분출과 같은 초유기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징후는 수의 천재가 보여주는 놀라운 지성이다. 그 아이의 계산 속도는 거의 컴퓨터 속도만큼 빠르다. 어떻게, 왜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그 자신도 모른다. 버몬트에 사는 이 여섯 살 난 남자아이의 이름은 제라 콜번(Zerah Colburn)이다. 콜번은 백

만 미만의 어떤 수라도 즉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다. 171,395라는 수를 주면 즉각 $5 \times 7 \times 59 \times 83$ 이라는 답을 냈고, 247,483에는 정확하게 941과 263이라고 불쑥 대답은 했지만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그마하고 통통한 손을 내보이면서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거죠.” 그러나 콜번의 신비로운 능력은 점차 사라지더니 학교를 마칠 무렵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직까지는 이미 프로그램 된 특정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간의 지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컴퓨터가 최근에 신기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병(기술자들이 순간적 이상이라고 하는)에 걸릴 뿐 아니라, 인간의 신중 범죄자와 별이는 기이한 전쟁에 점점 휘말리고 있다. 이 범죄는 특히 보안 코드에 접근하여 은밀한 불법 전화를 매개로해서 컴퓨터 뇌에서 매우 귀중한 정보를 직접 훔쳐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속성상 보수적인 컴퓨터는 뭔가 불법적인(그러므로 부적절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주인에게 신호를 보내 어떻게든 범인을 체포하려고 애썼으며, 수사관은 컴퓨터를 체크하여 사태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컴퓨터가 인간이 아닌 다른 컴퓨터의 희생양이 된다면 인공두뇌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해서 과감하고 진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자동화된 경쟁에 도덕이 개입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 같다. 오래된 동료와 선의로 하더라도 경쟁은 영적으로 진화하는데 장애가 된다. 내 기억에 의하면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거부했던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 학자들이었다. 윌리엄 하비가 발견한 혈액순환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한 사람들도 평신도가 아니라 만장일치

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마흔 명도 넘는 의사들이었다.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우리의 영적 투쟁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몇 년 전 나는 근처에 사는 캘리포니아 산골짜기에 설치되어 있는 송수관에 아이들이 매달려 그네를 타는 바람에 수차례 절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것처럼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화가 난 주민들은 회의를 소집했다. 성난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시는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송수관을 가시철조망으로 둘러싸거나, 필요하다면 전기 충격 장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참동안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조용히 일어서서 제안했다. “파이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놀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때때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웃의 담장 너머에 있는 나무는 누구 것입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그 나무는 물론 이웃 사람의 것이다. 하지만 그 나무는 여러분의 마당 잔디밭에 그림자를 드리우거나 전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사실 이웃집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나무에 등지를 튼 꼬꼬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덩굴, 등지를 흔드는 바람은 누구 것인가? 사실 이것들은 정신적으로 나무를 어루만지고 그 곁을 지나는 모든 이들과 만물의 것이다. 그러니 실은 세상사람 모두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의 일부가 주인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면 만물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은 만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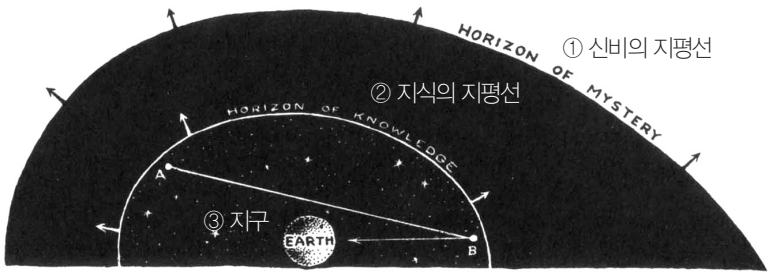
이러한 깨달음은 야망이 큰 재산가에게는 혹시 찾아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늦게야 찾아온다. 또한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가난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라는 것도 공평하게 나누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물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
 은 사람들은 일몰을 보거나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크로이서스(
 고대 서아시아 리디아 왕국의 대부호, 왕이었으며 B.C560~546 에 살
 았다.-역주)만큼 부자라는 느낌이 든다. 진리는 우리 모두를 영경귀나
 담배 연기처럼 자유롭게 해준다.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이유는 자기 자
 신보다 더 큰 위대한 힘에 자신을 내맡기기 때문이다. 크로이서스 왕
 은 자신이 땅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이 땅이 크로
 이서스 왕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크로이서스가
 소유했던 리디아의 작은 왕국은 땅 전체에 비하면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이 작은 것이다. 게다가 땅에는 이미 생명체가 차고 넘
 치지만 우리가 현재 모르고 있는 곳도 상당하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미개척지는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이 땅은 무수히 많은 생명체
 들로 넘치고 있는데, 실제로 자라는 생물체의 천배 많은 씨앗이나 알이
 생겨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인 모를 전염병이나 전쟁, 기아로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떤 방법으
 로든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며 창조하고 있다.

신비주의 논리

최근 수 세기에 걸쳐 모든 인간이 실용적, 경제적, 효율적으로 살려
 고 노력한 결과 커다란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목
 적적 없어 보이는 듯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인

간으로서 신의 왕국을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전체를 의심하는 것은 어찌면 주제 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속한 3차원의 우주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한성은 3차원의 지구에 내장된 일종의 수수께끼다. 빛과 방사선은 유한한 속도로 진행하지만 중력과 같이 서로 연관된 힘은 느리게 느껴진다. 그로 인해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기껏해야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우주 안에서 어떤 곳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멀리 떨어진 곳의 모습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지구에서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A라는 장소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지구를 사이에 두고 반대 방향으로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B라는 장소가 있다고 하자. 이때 10억 년 전 A가 B에 어떤 영향을 끼쳐 B에서 나오는 반응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면 그것은 20억 년 전 A의 상황에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상이 달려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물론 A와 B가 항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할 때이다. 또 (A와 B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A가 B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우주가 그동안 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가정해도 A의 30억 년 전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주는 “살아있는” 한 한순간도 정



지해 있었던 적이 없으며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우주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은하들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고 있는 지식의 지평선 너머에 뭔가가 존재하는지 묻게 되면 신비로운 일들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 놀라게 될 것이다. 사실 이성적으로 볼 때 신비의 수평선이 그것의 한 기능인 지식의 수평선보다 훨씬 크고 멀리 떨어져있으며 속도도 빠르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신비의 지평선은 가장 심오한 진리는 항상 정의내리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래한다. 심오한 진리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고 사실상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결국 인간의 제한된 마음으로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서 우주에 끝이 있다는 사실도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우주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심지어 공(空)조차 없다), 모든 세계의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끝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여전히 상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유한과 무한을 둘 다 단념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이쯤 되면 우리는 자신이 신비주의라는 분야에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비주의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경이로운 주제로서 수십 만 년 동안 인류에게 방대하고 불가사의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최근 수세기 동안에는 진보적인 현대 물리학자들이 지식의 경계를 넓혀서 이 미지의 분야에 최첨단 지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있는 신비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같이 신이라고 불려오던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동료 과학자들에 비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작 뉴턴은 우주에서 물체가 어떻게 서로 반응하는지 밝혀주는 그 유명한 운동과 중력의 법칙을 정립한 후에 왜 물체들이 서로 반응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특히 무엇 때문에 분명히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수백만 마일이나 떨어져있는 물체들이 서로 반응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원인과 결과를 추적한 끝에 모든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소위 “제1원인”이라고 불리게 된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은 자신의 저서 『광학(The Opticks, 1974)』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태양과 다른 행성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왜 밀도가 높은 물체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까? 자연이 공연한 일을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미는 어디서부터 유래되는가?”

우리시대에 와서 아인슈타인은 이제껏 살면서 가장 외경심을 느꼈던 경험은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묵상하는 순간이었다고 단언한다. 미지의 세계가 그에게 직접 가르쳐준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세계 자체가 최고의 지혜와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는 신에 대한 전통적 개념, 즉 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상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지만, 큰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화를 이루는 자연 법칙은 뛰어난 지성을 보여준다. 그에 비하면 인간의 체계적 사고와 행동은 정말로 하찮은 것이다.”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를테면 물리학자 조지 데이비스(George Davis)는 신은 무신론자가 흔히 내세우는 억측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신론자들은 자연이 아무런 도움 없이 무(無)에서 튀어나와 의식적 안내자 없이 계속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들의 주장이 틀린 이유는 “우주가 저절로 창조되었다면, 창조주의 힘 또한 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마치 인간이 눈을 가린 채 공중에 시계를 던지듯 무작위로 뭔가를 한다면, 소위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시계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과 주류 무신론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자연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신론자들은 지구가 본질적으로 매우 개연성이 높은 세계라고 보기 때문에 무작위 행위가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내가 이 장 첫 부분에서 제시한 증거를 그들이 받아들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우주가 탄생한 이래 얼마나 많은 침팬지가 무작위로 타이핑을 한다고 해도, 우연만으로는 이 신비롭고 멋진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작품은 결코 단 한 줄도 남길 수 없다는 증거 말이다.

물론 이 문제는 종교와 철학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오레리(Orrery)의 네 번째 백작인 찰스 보일(Charles Boyle)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보일은 18세기 초에 남 아일랜드에서 활약한 인물로, 자신의 이름을 딴 법칙도 남겼다. 오레리 경은 케플러가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 발견한 유명한 법칙과 뉴턴이 중력의 법칙에 대해 최근에 저술한 책을 참고해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든 다음 그것을 자신의 성 안에 설치했다. 이 모형은 매우 뛰어나고 역동적이며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궤도 모양을 한 둥근 테를 갖춘 시계장치였다. 가운데에는 낫쇠로 만든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을 상징하는 구체들이 천천히 그 주위를 돌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네 개

의 위성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었다.

오레리 경의 친구 중에는 유물론적 견해를 지닌 무신론자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친구는 우주가 단지 자연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로서 타성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움직이며, 어떠한 종류의 의식, 정신, 지성 등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무신론자는 오레리의 놀라운 새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기계를 직접 보고 싶어서 성으로 달려갔다. 커다란 방에서 모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오레리 경에게 질문을 했다. “기막히게 멋진데, 대체 이것은 어디서 난건가? 누가 만들었지?”

오레리는 전에 그 무신론자와 창조에 관해 말다툼을 벌인 일이 기억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서 친구를 놀라게 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라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지?” 친구가 반박했다. “이 복잡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그냥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말해주겠나?”

오레리 경은 태연한 어조로 그 태양계 모델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츰 무신론자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실망하게 되었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오레리 경은 친구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네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해본 거야. 이제 자네는 나와 거래를 하겠나? 누가 이 작은 태양과 행성을 만들었는지 말해주겠다고 약속은 하겠네. 하지만 자네가 먼저 이것보다 저 하늘에 있는 훨씬 크고 아름다운 진짜 태양과 행성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말해주면 즉시 얘기해주겠네.”

무신론자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우주가 정말로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든가, 지성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고도 항상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것이 오레리 정리의 기원이 되었다. “자연의 체계를 본 따서 어떤 모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데도 지성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실제 자연의 체계가 무엇을 창조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려면 그만큼 높은 지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 이 글은 'The seven mysterries of lif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거이 머쉬(Guy murchie)** | 1907-1997. 학교교사, 파일럿, 저널리스트, 사진가, 종군기자,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함. 1956년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공로상을 받음.

역자 | **심정요** | 덕성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하고픈 일을 찾다가 번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외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디서 리>(가제)를 공동번역중이다. 번역서로 김동미 님과 공역한 아동서 <엘로이즈의 목욕 소동>이 있다.

| 추천도서 | 마음에 닿은 책

The seven mysterries of life

Guy murchie 저 | Mariner Books 刊 | \$19.95

저자는 지구 밖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관조하듯 우주의 본질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다양성에 이르는 일곱 가지 신비를 풀어간다. 저자의 17년간의 다방면의 연구가 집약되어 있어서, 참으로 풍부한 지식과 통찰을 담고 있다.

